

“빛고을박물관 건립부지 선정 의혹투성이”

뉴스 초점 명성예식장 선정 파장

광주 빛고을박물관 건립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3월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이 우선협상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박물관 부지'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더니 최근엔 '부지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21일, 빛고을문화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황하택)가 명성예식장을 빛고을문화관 건립 후보지로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계획대로라면, 광주시는 국비 32억원과 시비 91억원 등 모두 123억원을 들여 오는

서정성 의원 “회의록 미공개에 공정회도 없어”
市 “법·행정적 문제 없다 일정대로 추진할 것”

2015년까지 명성예식장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해 전시관과 기획전시실, 창작실, 체험관 등을 갖춘 문화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하지만, 발표 직후 일부에서 ▲건립 후보지가 문화와 아무런 연관이 나 상징성이 없는 예식장 건물이며 ▲소유주가 제시한 매각금액이 지나치게 높고 ▲추진위원회가 건립 후보지까지 선정한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 후보지를 동구에만 한정해 공모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광주·전남작가회의는 성명을 내고 “추진위가 부지선정 심사까지 도맡은 것은 절차상으로도 의사

결정의 합리성에서나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라며 “추진위는 공정한 진행만 하고 부지 결정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서정성(민주·남구2) 의원은 여기에 더해 “빛고을문화관 부지 선정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추진위 운영까지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추진위 구성 인원이 애초 11명에서 최종 심의 3일 전 12명으로 변경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추진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광주의 오월정신을 담아내는 상징성이 있어야 할

문화관 부지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도 한차례 없이 결정했다는 점 등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의혹으로 지목했다.

서 의원은 “빛고을문화관은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지역문화의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24일 빛고을문화관 건립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인인데도 토론회나 공청회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문화계 각계 각종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화관 건립과 관련한 논란을 검증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부지선정에는 법적·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명성예식장 측과 진행중인

가격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문화관 건립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회의록은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다만 후보지들에 대한 채점표는 개인신상에 관한 것인 만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는 열지 않았지만, 앞으로 콘텐츠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하택 추진위원장은 “명성예식장이 부지로 선정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추진과정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며 “추진위원들이 적절히 결정을 했으니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시티 뉴스

광주U대회 조직위, 마케팅 전문 대행사 모집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마케팅 분야 전문대행사 모집한다. 마케팅 대행사는 조직위원회를 도와 공식 후원사 유치 활동을 펼치고 각종 프로모션 등을 진행함으로써 광주U대회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대회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인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직위는 후원사에게 광주U대회의 상업적 권리를 상품의 판촉과 광고에 활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과 대회에 사용될 경기용품 등을

제공받을 계획이다. 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마케팅 대행실적이 50억원 이상인 업체며, 오는 26일 사업 설명회에 참가해야 한다. 제안서는 다음달 29~30일 조직위원회에서 접수하며, 5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5광주U대회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gwangju201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지하철 송정리역→광주송정역 변경 추진

광주지하철 ‘송정리’ 역의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현재의 ‘송정리’역을 ‘광주송정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시민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똑같은 역임에도 코레일은 ‘광주송정역’으로, 광주도시철도사는 ‘송정리’역으로 각각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어 승객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과 광주도시철도사는 원래 ‘송정리역’과 ‘송정리’라는 이름을 각각 사용해왔으나 지난 2009년 코레일이

명칭을 ‘광주송정역’으로 바꾸면서 이름이 이원화됐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명칭 변경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와 자치구 의견 수렴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gwangjusbway.co.kr) 코레일은 ‘광주송정역’으로, 광주도시철도사는 ‘송정리’역으로 각각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어 승객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과 광주도시철도사는 원래 ‘송정리역’과 ‘송정리’라는 이름을 각각 사용해왔으나 지난 2009년 코레일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설문조사 이후 광주시 지명위원회의 자문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의회에 설명하는 절차를 거친 후 역사 명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 공직자 대상 ‘정책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

광주시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시는 오는 5월 30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내가 광주시장이라면 추진하고 싶은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며, 세부 과제는 ▲지역발전 위한 신규프로젝트 ▲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제반사항 ▲시민 편의 추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 개선 등이다.

시는 우수제안으로 대상 등 총 10편을 선정하고, 시상금을 비롯한 실적이 점, 특별승급·승진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lucky@

다문화 가족 보호·지원 ‘인권지킴이’ 공식 출범

광주시가 다문화가족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인권지킴이’가 지난 19일 남구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인권지킴이는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이주여성 110명이 각 동(洞)별로 1명씩 지정해 개발방문과

상담을 진행한다. 또, 이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에 필요한 의료·법률서비스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다문화가족 인권지킴이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 공연·전시 공간 숨통 트인다

2015년 2000석 규모 대극장 등 들어서

광주는 두말할 것 없는 예술의 도시다. 하지만 시민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 시설은 ‘예향’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2 공연예술 실태조사’ 결과에서 광주의 문화시설은 광역시 가운데 3위에 불과하다. ‘2012 전국문화기반 시설 총량 분석결과’에서도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 개수가 28.7개로, 특별·광역시 중에선 2위였지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는 11위에 그쳤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는 2015년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여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완공되면 첨단 전시·공연 시설 등이 대규모로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공연장의 경우, 아시아예술극장에 대규모 브랜드 공연작품을 상설 공연할 수 있는 2000석 규모의 대극장 1개와 장르별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518석 규모의 중극장 1개가 들어선다.

또, 어린이문화원에는 어린이공연장(270석) 그리고 아시아문화정보원에는 시민이용 소극장(245석)

등이 갖춰진다.

전시시설 역시, 문화창조원에 6743㎡와 2317㎡ 규모의 초대형 복합전시관 2개가 설치되며, 어린이문화원에도 창의인재를 키우기 위한 어린이체험전시관인 4675㎡ 규모의 상설전시실이 조성된다.

도서관 시설로는 아시아문화정보원에 6760㎡ 규모의 라이브러리파크, 어린이문화원에 570㎡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이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문화전당이 완공되면 도시민의 소통을 담당할 다양하고도 독특한 광장들이 여기저기 들어서게 된다. 아시아문화정보원 앞에 1만

1140㎡ 규모의 아시아문화광장이 조성되는 것을 비롯해 도청분관 분수대 주변에는 5·18민주광장(8130㎡), 아시아예술극장 옆에는 계단식광장(1만1500㎡), 문화창조원 옆에는 다목적이벤트마당(7500㎡) 그리고 복합전시관 앞에는 복합전시관광장(2500㎡)이 조성돼 광장문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광주시는 광주·전남 근대미술을 연구·조사하고 기획전시할 수 있도록 오는 2017년까지 3900㎡ 규모의 아시아근대미술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산시민연대’ 새 집행부 구성 갈등

광주 광산구의 대표적 NGO단체인 ‘광산시민연대’가 2013년도 신입 집행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회원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빚어져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광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집행부가 2013년도 신입 수석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12개 분과 공동대표들도 새롭게 선임됐으나 이 과정에서 전임 수석대표 측 회원들과 파벌이 형성돼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소집된 4월 확대이사회에서 신입 수석대표 측이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김준행(54)씨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켜 회원들 사이에 분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 감사의 해임사유가 석연치 않음에도 ‘광산시민연대’정관 17조에 따르면 선거직인 감사의 해임안은 총회에서 다뤄야하는데도 신입 수석대표가 확대이사회에서 해임안을 가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해임안 가결에 앞서 전임 수석대표가 회의석상에서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중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입 수석대표는 “김 감사를 해임하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겠다”며 거수로 반대 의사를 물은 뒤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렬기자 srchoi@



KB국민은행 시청출장소 개소
광주시 제2금융인 KB국민은행이 22일 광주 시청사 1층에 출장소를 개설했다. 광주시청 개청 이래 광주 시금고를 담당해 온 광주는 행 외에 타 은행이 청사에 입점하는 것은 KB국민은행이 처음이다. <광주시 제공>

지지옥션 창립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강연 제1차

지지옥션 광주경매특강

전세보다 싼 경매물건 12선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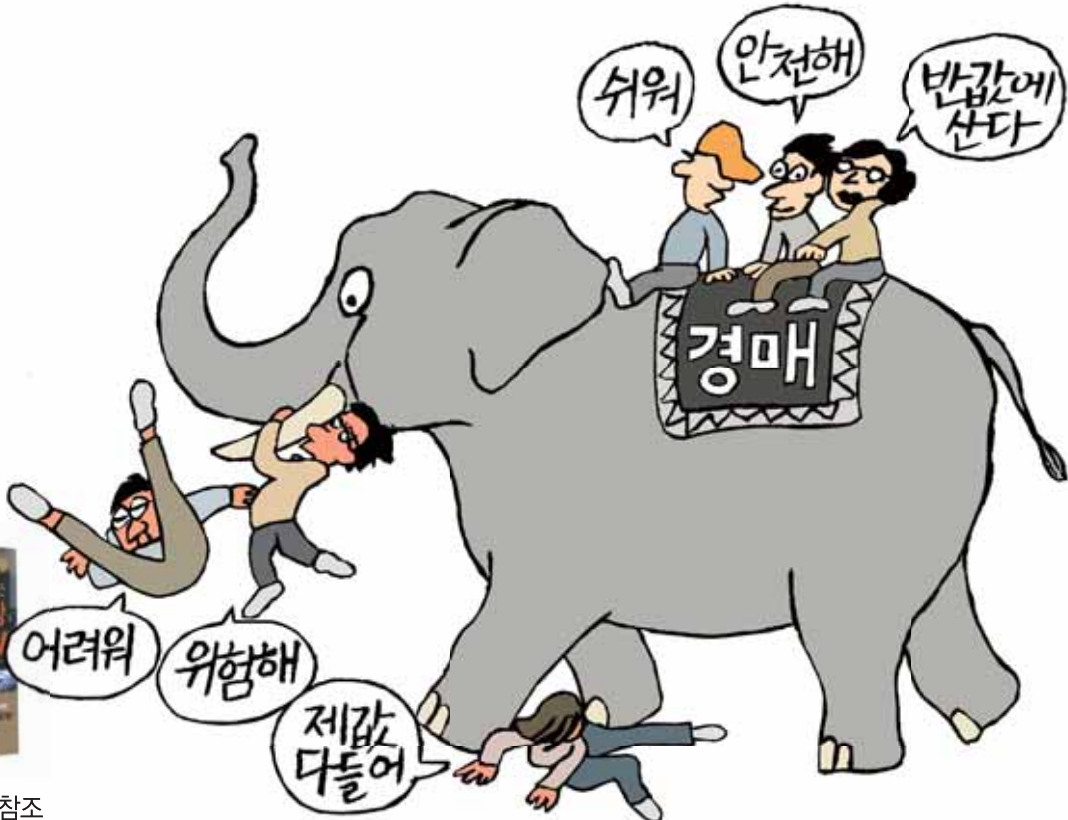
- 일 자 : 2013년 4월 27일(토) 오후 1시30분~5시
- 장 소 : 광주광역시 YWCA 1층 대강당
- 금 액 : 사전접수시 2만원 (현장접수시 5만원)
- 사전접수 : 지지옥션 홈페이지(www.ggi.co.kr)
- 문 의 : 1588-0133

30주년 기념 총 15만원 상당 무료증정

1. 도서 3권 무료 증정 / 46,500원 상당
2. 전라권 3개월 무료이용권 증정 / 10만원 상당
3. 지지옥션 상품권 최대 30%할인 판매



※ 할인행사는 특강 현장에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지옥션 홈페이지(www.ggi.co.kr) 참조



1강: 경매 기본기 하루에 끝내기

- 권리분석 더 이상 어렵지 않다. 권리분석도 공식이 있다.
- 자기 자금 없어도 가능한 내집 마련 추천 경매물건 4선 공개

2강: 지금은 NPL이 대세!

- NPL을 알아야 경매의 완성
- 돈되는 NPL 물건 4선 소개

5분특강: 경락잔금 대출 활용법

- 경락잔금대출 상품 안내
- 경락잔금대출 상품 상담

3강: 경매는 수익률로 승부한다

- 어디서도 듣지 못할 주옥 같은 성공 실패 사례
- 50% 수익 나는 물건 4선 공개

